

BP, 석유화학 사업 대폭 강화!

Solvay의 HDPE 합작지분 인수 ... 에틸렌 생산능력 240만톤

BP Chemicals이 Solvay로부터 유럽 및 미국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합작지분을 인수하는 등 석유화학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Solvay는 2004년 이후 BP와의 HDPE 합작기업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BP와 Solvay는 2001년 유럽 및 미국의 HDPE 생산을 통합해 2개 합작기업을 설립했는데 총 생산능력이 220만톤에 달하고 있다.

BP와 Solvay는 합작기업 설립 당시 합작지분을 양도 또는 매각할 때 상대방에게 매각 및 인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한 바 있다.

Solvay는 2002년 초 Ausimont를 13억유로(12억달러)에 인수하면서 금융부채를 끌어쓰게 됐는데, 2004년 11월까지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HDPE 합작지분 매각을 고려중이다. BP가 Solvay의 합작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8억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P는 석유 메이저이면서도 HDPE가 핵심사업 중 하나이고, Solvay는 HDPE 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또한 양호해 BP가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BP는 2010년 이전 유럽에 Ethylene 크래커도 건설할 방침인데, Veba Oel과 Petroleos de Venezuela가 50대 50 비율로 합작한 Ruhr Oel이 에틸렌 75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에틸렌 생산능력이 총 240만톤에 달하게 된다.

특히, PDVSA가 2003년에는 Ruhr Oel의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철수할 예정으로 있어 합작지분을 인수하면 에틸렌 생산능력이 75만톤 늘어나게 된다. Veba와 PDVSA는 이미 합작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BP의 에틸렌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BP는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소비하기 위해 2001년 몇몇 국제 석유 메이저 및 사우디 정부와 합작으로 사우디에 2개의 Olefin 컴플렉스를 건설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2개의 Olefin 컴플렉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BP는 ExxonMobil, Phillips Petroleum, Shell과 함께 Core Venture I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P는 현재 가스 채굴 및 생산,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 사용문제를 논의중으로 BP는 Ethane을 단독 사용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는 가스 프로젝트에서 대량 생산되는 Propane 중심의 원료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2개 에틸렌 크래커는 각각 생산능력이 약 100만톤으로 PE 및 EG(Ethylene Glycol)의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Propane을 동시 사용하면 PP(Polypropylene)의 원료도 공급하게 된다.

한편, BP는 세계적 규모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50만톤 이상 플랜트를 유럽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TA 플랜트 건설 후보지로는 벨기에 Geel과 독일 Gelsenkirchen을 비롯해 5곳을 지목하고 있으며 2002년 건설공사를 착공해 2005년 초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Gelsenkirchen 부지는 최근 Veba Oel을 인수하면서 취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7/14>